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하여-*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남성 5명의 생애사를 재구성한 결과, 이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직업사적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였고,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기도 하였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와 생애사 연구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노동이주남성, 재독한인, 파독광부, 젠더 정체성, 사례재구성, 생애사 연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기원은 1960년대 초반 3년간의 단기이주를 계획하고 독일생활을 시작한 것이 50여년의 영구이주로 이어져 독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파독광부'나 '파독간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유학생과 외교관, 상사원까지 합친 재독한인들은 2011년 현재 3만 명을 약간 웃도는데, 이중 대략 절반 정도가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1세대 및 그 후속세대들로(이영석·박재홍, 2006: 444)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주류는 노동이주자로서 독일생활을 시작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435).

이들 1세대 및 그 후속세대들로 구성된 디아스포라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독한인들의 기원이 되는 파독광부나 파독간호사 출신 노동이주자들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와 연구주제, 접근방법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 측면에서 볼 때 파독간호사 출신 노동이주여성들에 집중된, 연구대상자 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양 집단을 포괄한 논문들(최재현, 1985; 이희영, 2005; 이영석·박재홍, 2006; 이영석, 2008)이거나 파독간호사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수자, 2004; 2006; 김용찬, 2007; 김학선 외, 2009; 나혜심, 2009a; 2009b; 양영자, 2010; 2012)로서, 파독광부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연구대상자 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쏠림 현상은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들에 주목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할 때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최재현, 1985; 양영자, 2012), 직업정체성(김용찬, 2007; 김학선 외, 2009; 나혜심, 2009a; 양영자, 2010; 2012), 적응(최재현, 1985; 이수자, 2004; 이희영, 2005; 이수자, 2006; 이영석·박재홍, 2006; 김용찬, 2007; 이영석, 2008; 김학선 외, 2009; 나혜심, 2009a; 양영자, 2010; 2012), 여성의 역할(나혜심, 2009b), 사회참여(이희영, 2005), 조직화(김용찬, 2007) 등의 특정 주제들에 집중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소수의 연구들(이수자, 2004; 나혜심, 2009b; 양영자, 2012)만이 젠더에 대한 주제를 부분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도 모두 여성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권위적인 가부장으로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이수자, 2004; 나혜심, 2009b)와, 이러한 가부장 역할로부터 탈피한 가능성을 열어둔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양영자, 2012)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젠더관계의 양 축을 이루는 남성들의 시각이 배제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젠더에 대한 주제가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질적 접근을 통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논문들(이희영, 2005; 양영자, 2013)을 제외한 이들 논문들의 대부분은 사례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점들을 주로 연구결과로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그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헤게모니적 남성 정체성(hegemoniale Männlichkeit)'(Connell, 1987; 1999)이나 남녀 간 이분법적인 성분업이 붕괴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남성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남성연구(Männerforschung)의 논의 지점(Böhnisch, 2006)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젠더 정체성은 이미 완결된 '사회적 구성물(das soziale Konstrakte)'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화 과정(sozialer Konstruktionsprozess)'에 있는 진행형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에도 동의한다. 아울러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화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생애사, 즉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업적(individuelle und kollektive Leistung)'이자 '생애사적 작업(biografische Arbeit)'(Fischer-Rosenthal, 1991; 1999)이요, '생애사적 능력(Biographizität)'(Alheit, 1995)이 집적된 구성화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생애사로부터 출발한 분석이 젠더 정체성 논의에 적절하다는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 방법에도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독한인들과 관련한 연구들이 노동이주남성들과 노동이주여성들을 포괄한 논

문들이거나 노동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로서, 특히 노동이주여성들에 집중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젠더와 관련한 논의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게다가 소수에 불과한 젠더에 대한 논의들도 여성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연구들이 질적 접근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사례들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는 점까지도 주목하여,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들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을 통해 이들의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들의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데에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들에 대한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한 반면, 이들 남성들 외에 재독한인 노동이주여성들을 포괄하거나 이들 여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논문들은 다수 발견된다. 이에,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들뿐만 아니라 재독한인 노동이주여성들까지도 포괄한 논문들을 연구대상자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흐름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양영자(2013)는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의 생애사를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 해당 남성의 생애사가 개인의 직업사 위주로 구술되었는데, 이는 글로벌적 노동이주자로서 제도화된 삶을 살았기보다는, 사적 남성으로서 개인화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둘째,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출신 모두를 포괄한 노동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최계현(1985)은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출신 노동이주자들의 의식세계를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의 의식세계에서는 '걸도는 생활'이 준거틀인 일상생활 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희영(2005)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애체험과 사회운동 간의 연관을 구술 생애사에 입각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의 이주 이후 사회운동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적 지향은 이주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생애사적 체험과 복합적인 연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영석과 박재홍(2006)은 남해군의 '독일마을'에 입주한 노동이주자들의 역이주와 귀향 의식을 혼합방법에 입각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의 이주생활은 독일문화를 내재화한 동시에 한국문화도 지켜나가는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는 '출고 배고팠던 60년'대의 한국과 '잘 사는 나라' 현재의 한국으로서 상반된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역이주의 생활 시 한국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석(2008)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 이전에 경험한 한국과 이주 이후에 새롭게 경험한 한국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주 이전에 경험한 한국은 가난, 부패, 무질서 등 연민의 대상으로서 이미지화되어 있는 반면, 이주 이후에 경험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된 당혹의

대상으로서 이미지화되어 있는 바,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파독간호사 출신 노동이주여성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 먼저, 이수자(2004)는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를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은 가부장적 지구화 과정에 편입된 경제적 약자임과 동시에, 가부장적 문화에 수동적으로 편입된 성적 약자로서도 위치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와 동일한 연구자인 이수자(2006)는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독일사회의 관용성과 타문화에 대한 탄력적 태도로 인해 이들이 문화혼성성이 발현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용찬(2007)은 독일이주와 조직화의 관계를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처럼 집단적인 이주를 통해 영구적으로 정착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이주생활이 출신국사회의 봉건적 가족과 사회관계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주국 사회에서 자신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학선 외(2009)는 이주생활의 과정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이 '삶에 도전하기', '새로운 삶 껴안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등을 거쳐 이주국에서의 삶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혜심(2009a)은 이들이 수행한 간호노동의 성격을 질적 접근을 통해 규명한 논문에서, 이들의 이주생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에서 '방문노동자(Gastarbeiterin)'로서의 위치가 '이주자(Migrantin)'로서의 위치로 전환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동일한 연구자인 나혜심(2009b)은 한인 남성들과 결혼한 이들의 가정 내 역할을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이 가정경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리가 관철되는 가정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양영자(2010)는 이들의 정체성을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논문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이주생활 과정에서 단일지역적 정체성으로부터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초지역적, 초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일한 연구자인 양영자(2012)는 이들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주 이전에는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양상을, 그리고 이주 이후에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결혼 이후에는 노동이주여성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와 포기한 경우에 따라, 성중립적 젠더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하였고, 성분리적 젠더를 다시 재구성하며 고착화시키기도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영석과 박재홍(2006)의 논문이 혼합방법으로써 접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적 연구 방법에 따른 논문들로서,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들이나 파독간호사 출신 노동이주여성들의 생활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 대부분이 사례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점들을 제시했던 점은 개별 사례들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분석하는 사례재구성 방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젠더에 대한 주제가 소수의 논문들에서만 다루어졌고, 이러한 소수의 논문들마저 모두 여성들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논의된 것들인데다가 서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논의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동이주남성들과 노동이주여성들을 포괄한 논문들이거나 노동이주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인 점은 노동이주남성들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들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을 통해 이들의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규정되는 성으로서, 남성이나 여성에게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부여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는 기존의 젠더가 재생산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며 또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는 undoing과 doing의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Butler, 2004)된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에 대한 정체성은 개개인들이 유동적인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해 각자 주관적으로 내면화한 자아의식이다. 또한 이러한 남성 정체성이나 여성 정체성은 각각 서로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그동안 남성 정체성은 여성 정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남성 정체성은 권력과 지배, 강함, 용감함 등의 지배적인 가치와 결부된 것으로 생산 영역과 공적 영역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헤게모니적 속성으로서, 그리고 여성 정체성은 순종, 부드러움, 아름다움 등의 의존적 가치와 결부된 것으로 재생산 영역과 사적 영역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속성으로서 정의(Böhnisch, 2006)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들에게는 생산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역할이,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재생산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역할이 주어졌으며,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분업 속에서 남성의 위치는 상위에, 그리고 여성의 위치는 하위에 자리하는 젠더위계가 세워졌던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헤게모니적 '젠더위계(gender hierarchy)'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지배적이고 대항적인 남성 정체성도 해체되고 있으며, 이분법적인 성분업도 탈경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남성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본 연구도 '이중적인 압력의 뒷'에 걸린 남성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남성(neuer Mann)'(Faludi, 2001) 현상에 주목한다. 신남성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영역에 필요한 '능력(Verfügbarkeit)'을 갖추도록 여전히 '외부화 압력(Externalisierungsdruck)'을 받으면서도, 미시적인 생활세계적 맥락에서는 재생산 영역에서 작동되었던 권위주의적인 남성의 역할로부터도 탈피하도록 '탈헤게모니화 압력(Enthegemonialisierungsdruck)'(Böhnisch, 2006)을 받는, 오늘날 노동자 계층의 남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탈경계화 과정에 있는 남성 정체성을 일정 부분 이해하도록 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신남성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생애사를 특징짓는 '선택생애사(Wahlbiographie)'(Ley, 1984)²⁾로부터 출발하는 사례재구성 방법이 적절하다는 여성주의적 생애사

1) 바로 이러한 신남성은 재독한인이주남성의 생애사를 귀추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 현상이었다.

연구에도 동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ing과 undoing의 사회적 구성화 과정에 있는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채독한인 노동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는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 방법에 따라, 2012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독일 현지 6개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는 광산노동자로서 이주하였으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비루어지역 2개의 대도시와 1개의 중소도시의 노동이주여성들 5명이었고, 지속적으로 광산노동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루어지역 1개 소도시와 2개 마을의 노동이주여성들 7명으로 하였는데, 이들과 실시한 인터뷰는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소요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터뷰는 파독간호사 출신 여성들과 결혼하여 부부 모두 직업생활을 한 경우로, 아내들의 생산 영역에의 참여가 지속된 이주생활로 인해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전자의 5명과 실시된 것들이다.³⁾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자료는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의 5 단계(Rosenthal, 1995: 215-226; 2011: 186-211)를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sequenzielle Analyse der biographischen Daten)’ 단계에서는 구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배제된 객관적인 생애사적 데이터들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분석한 후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둘째, ‘텍스트분석과 주제적 영역분석(Text- und thematische Feldanalyse)’ 단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구술된 인터뷰텍스트가 무엇 때문에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특정 주제들과 특정 방식대로 구성된 것인지 분석하고, 주제적 영역을 발견하여 이야기된 생애사의 ‘발생기원(Genese)’을 설명하는 분석을 하였다. 본 사례들에서는 ‘우세적 주제(dominantes Thema)’가 ‘남성으로서의 직업생활사’였는데,

2) 선택생애사는 연속적인 선형의 ‘정상생애사(Normalbiographie)’(Levy, 1977; Kohli, 1985)가 아니라 ‘단절(Abbruch)’과 ‘비연속성(Diskontinuität)’으로 중첩된 생애사로서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생애사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논자들에 따라서는 ‘성찰적 생애사(reflexive Biographie)’(Giddens, 1991), ‘공작(조립)생애사(Bastelbiographie)’(Hitzler, 1988; Beck and Beck-Gernsheim, 1993) 혹은 ‘패치워크생애사(Patchworkbiographie)’라고도 일컬어진다.

3) Schütze의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동안 다른 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바, 여기에서는 중복성과 제한된 지면을 고려해 최소화하였다. 다만, 루어지역에서 실시한 광산노동자로서 퇴직한 노동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는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한 비루어지역 노동이주자들의 인터뷰에서와는 달리 젠더 정체성이 아닌 이주경험이 주요 주제로서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했던 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아울러 생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은 자료를 수집할 때뿐만이 아니라 분석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술은 지면상 생략했음도 밝힌다.

사례들에 따라 '남편으로서의 가정생활사'와 '아버지로서의 가정교육사'도 결합되는 구조를 띠었다. 그리고 '주변화된 주제'는 '이주자로서 경험한 복지'였는데, 사례들에 따라 표면되기도 하고 잠재된 구조를 띠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에 기초해 도출한 주제적 영역은 '독일에서의 나의 삶은 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복지국가에서 보낸 안정된 삶이었다.'였다.

셋째,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과 연속적 세밀 분석(Rekonstruktionen der erlebten Lebensgeschichte und sequenzielle Feinanalyse)' 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대조시켜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특정 체험들이 지닌 생애사적 의미 그리고 이러한 체험된 생애사의 구조 등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야기된 생애사의 발생기원은 무엇인지, 각 체험들이 이루어졌던 과거 속으로 들어가 해독하였다. 본 사례들에서는 '독일에서의 나의 삶은 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복지국가에서 보낸 안정된 삶이었는데, 이는 이주자도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와, '독일에서의 나의 삶은 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복지국가에서 보낸 안정된 삶이었는데, 이는 직장가정을 양립한 아내와 함께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고, 이주자도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로 발생기원까지도 해명된 두 유형의 주제적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분석(Vergleich von erzählter und erlebter Lebensgeschichte)' 단계에서는 현재 관점의 이야기된 생애사와 과거 관점의 체험된 생애사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낳는 '사례구조(Fallstruktur)'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분석을 하였다. 본 사례들의 경우, 위의 주제적 영역이 형성되고 이야기된 생애사의 서사구조가 되는 사례구조는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유형형성(Typenbildung)'의 단계에서는 각 사례들을 극소비교와 극대비교의 원칙에 따라 대조시킴으로써, 각 사례들이 지닌 고유성과 특수성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본 사례들에서는 이를 위해 주제적 영역을 사례구조에 근거하여 젠더 정체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는데, 본 이주노동남성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정체성은 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게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과, 한 남편으로서의 남성에게도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는 유형으로 양분화되었다. 이중 전자의 유형은 다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전 생애사에 걸쳐 '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와, 이러한 남성 정체성에 단절이 동반됨으로써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로 나뉘었다. 또한 후자의 유형은 이러한 남성 정체성이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소극적이고 협소한 수준에서 '지체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경우와, '생계와 가사 분·전담에 능숙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압축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경우로 나뉘었다.

5.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

본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인데, 직업사적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고,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1)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재생산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이전에는 직업 경험이 없이⁴⁾ 미혼인 상태에서 독일로 이주한 남성들의 생애사에서 발견되는데, 이주 이후에 이루어진 직업사의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에 따라,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1)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연속적 재생산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이후에 시작된 직업사가 빈번하게 굴절되지만 그 단절되는 기간은 짧은 김명섭⁵⁾씨의 생애사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이주 이전의 '꿈에 그친 화이트칼라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 발휘되어, 이주 이후의 '젠더관계에 도전받는 블루칼라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① '꿈에 그친 화이트칼라로서의 남성' 삶 속 발현

김명섭씨는 1945년에 A⁶⁾였던 아버지와 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 3남 1녀 중 차남으로 B지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주 이전의 이야기된 생애사에 의하면,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에 병사하였고, 아버지는 이후 1년이 채 못 된 시점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하였다. 고등학교

4) 이주 이전에는 표명된 혹은 잠재된 직업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인데, 실제로는 직업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직업 경험이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의식적으로 구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5) 김명섭씨를 포함한 본 사례의 인명은 모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가명이다. 그리고 이중 김명섭씨의 사례는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을 소개하는 기 논문(양영자, 2013)에서 활용된 바가 있음을 밝힌다.

6) 하급 공무원이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부호화한 것이다. 이후의 사례들에 나타난 특정 형제자매나 질병, 자녀의 성 등도 해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익명성 보장을 위해 부호화하거나 성을 변경하여 표기할 것임을 밝힌다.

졸업 후 B시 소재 C공대에 합격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다지 별 명성이 없는 학교였던 바 큰 아쉬움 없이 입학을 포기하고 입대하였다. 그런데 군복무 중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4개월을 연장한 32개월 만에야 제대할 수 있었고, 이후 곧 바로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하여 독일에 왔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된 생애사에 재현된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즉 하급공무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 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했던 어머니와 새어머니, 그리고 공대합격생과 군복무자, 파독광부 모집 합격자였던 자신 등의 역할을 살펴보면, 생산 영역은 남성이, 재생산 영역은 여성이 담당하는 정형화되고 이분법적인 성역할 규범 및 이에 상응한 젠더 정체성을 아비투스⁷⁾화한 삶을 살았음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 이전의 이야기된 생애사를 생애사적 데이터와 관련시켜 분석한 체화된 생애사 및 이주 이후의 직업사와 관련한 이야기된 생애사까지 연관시켜 분석하면, 위의 정형화된 이분법적인 젠더 정체성은 실현되지 못한 꿈에 그친 “사무직” 남성 이미지와 결합되어 ‘화이트칼라 남성’ 정체성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있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1964년 19세가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복무에 들어간 1967년 22세 때까지 3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전혀 구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가 당시에 실업자로서 지냈을 가능성⁸⁾이 있음을 발설하는 점이고, 이주 이후의 직업사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작 원했던 분야는 “사무직”이었다고 말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실업자 생활은 공대합격생, 파독광부 모집 합격자로 이어진 일련의 생애사적 데이터에 일치한 블루칼라보다는, “사무직”으로 대변되는 화이트칼라를 선호한 것과 맞물려 이루어졌던 것으로, ‘화이트칼라 남성’ 정체성이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나 실현시키지는 못한 꿈에 머물렀다는 점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 이전의 이러한 ‘꿈에 그친 화이트칼라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발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젠더관계에 도전받는 블루칼라로서의 남성’ 삶 속 연속적 재생산

이처럼 화이트칼라가 되는 데에 실패한 김명섭씨는 1970년 제대 후 곧 바로 광산노동자로서 독일에 이주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3년 계약기간만 채우면 목돈을 마련하여 귀국한 후 차선책으로 뭔가 “장사”를 해 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생애사적 데이터에 의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에 파독간호사와 결혼하였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아내가 직업생활을 하는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철강회사로 이직했으며, 이후에는 간호학교 학생, 발전공사장 노동자, 기계설비 분야 재교육과정 연수생, 제 2차 철강산업 노동자, 자영업자, 제 3차 철강산업 노동자, 재가복지 노인수발사 등 다양한 직업을 편력하는 생활을 거

7) ‘아비투스(habitus)’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신학대전에서 ‘자세를 잡고, 말하고, 걷는 영속적 성향, 또는 지속적 방식으로서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뜻하는 희랍어 헥시스(hexis)를 아비투스로 번역한 데에서 유래한다. 이후,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인간의 잠재력과 행위 사이에 놓여 있는 지속적인 성향들의 체계로 정의하였다. 즉, 아비투스는 객관적 규칙성의 외적 구조를 내재화하는 ‘외재성의 내재화’ 기제인 동시에, ‘내재성의 외재화’ 기제이기도 한 것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의 객관적 구조와 아비투스라는 내재화된 구조의 변증법적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박영균, 2010: 374-378)고 이해할 수 있다.

8) 당시,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들(남재량·이창용, 1998; 나혜심, 2009c; 양영자, 2013; Yoo, 1975; Nestler-Tremel and Ulrike, 1985; Stolle, 1990)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의 30여 년에 걸쳐 2001년 54세의 나이로 퇴직에 들어갈 때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주 이후의 직업사는 다양한 직종의 블루칼라 생활이 주가 되고, 차선책으로 여겼던 “장사” 및 아내가 종사한 분야와 동일한 간호직과 돌봄직에 종사한 생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직업사(Patchwork-Berufsbiographie)’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생애사적 데이터와 관련한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체류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결혼 이후 여러 직업을 편력해야 했던 생활이 보고(Bericht)와 ‘서술(Beschreibung)’ 위주로 간략히 구술되었을 뿐,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나 해석은 매우 절제된 수준에서만 구술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생애사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야기된 생애사까지도 교차시켜 분석한 체험된 생애사를 통해서는, 3년 먼저 독일에 와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던 과독간호사와 결혼한 것이 체류연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김용출, 2006: 172; 나혜심, 2009b: 60; Nestler-Tremel and Tremel, 1985: 39), 아내의 근무지가 위치한 도시로 옮겨 철강회사로 이직한 것이나, 아들과 딸을 둔 3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아내가 졸업한 간호학교에 입학한 것, 그리고 퇴직에 들어가기 전 노인수발사로서 여러 해 동안 활동한 것도 지역사회와의 인적 및 직업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던 아내의 지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주로 블루칼라로서 생활한 이주 이후의 패치워크직업사는 화이트칼라에 대한 환상에 포위된 삶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이러한 블루칼라로서 생활한 패치워크직업사는 언어적 소통의 문제로 화이트칼라에의 진입이 점점 더 요원해지는 이주생활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고⁹⁾, 동시에 독일에 먼저 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직업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아내의 지원이 동반된 때문에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던 바, 남편이 상위에 위치한 기존의 젠더관계에 도전을 받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뷰 후반부에 이르러 자신의 블루칼라 생활이 주를 이루는 패치워크직업사 및 이러한 생애사적 궤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주 이전의 삶까지도 포괄한 생애사를 자기정체성과 더불어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꼭대기 정상”에 이르지 못한 채 아래에서 밀도는 삶에 그쳤던 것으로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화이트칼라 환상에 포위되고, ‘젠더관계에 도전받는 블루칼라로서의 남성’ 삶에 초점을 맞추어 성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10): (삼각점의) 꼭대기 정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밧거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쪽, 독일 사람도 아니지만, 독일에 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독일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음? 또 한국에 가도 진정한 한국, 대화나 성격이 많이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면은 내가 좀 이질감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완전히,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해

9) 본 사례들의 경우, 대학을 중퇴한 이진한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명섭씨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학력은 당시 독일의 광산노동자가 일반 중·고등학교가 아닌 직업학교 출신들이었다는 점(Märker, 2010: 양영자, 2013)과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본 사례들처럼 노동이주를 매개한 광산노동자 생활을 계약기간만 채우고 타 직종으로 이직한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나혜심, 2009b).

10) 참은 인터뷰 참여자의 약자이고 실은 인터뷰 실시자의 약자이다.

(21:32-41).11)”

그러나 블루칼라 생활이 주를 이루는 패치워크직업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생계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 등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두서너 번에 걸쳐 간단히 논의된 것 이외에는 거의 테마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절이 동반된 패치워크직업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자녀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적 상황에까지 이른 경험이 없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생계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평생에 걸쳐 직업생활을 유지한 아내와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도맡아 지며 직업생활을 했던 아내를 위해 독일 전역을 돌며 일을 했던 발전공사장 현장 작업을 1년 반 만에 그만 두었고, 거주지로부터 4시간이 나 벗어난 대도시에서 동업한 한국식료품 등의 가게도 4년 만에 청산했다고 구술한 것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유지되는 삶 이외에도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에 따라 아내를 도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삶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블루칼라로서의 남성’ 삶이 주가 된 패치워크직업사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생애사를 구술하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가사를 분담한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극소화된 수준에서만 구술한 서사구조는, 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이주생활의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비연속적 재생산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후 시작된 자영업 위주의 직업사가 굴절에는 빈번히 노출되나 단절에는 간헐적이고 단기적으로만 노출된 이진한씨의 생애사 및 자영업 위주의 직업사가 빈번한 굴절뿐 아니라 장기적인 단절에도 노출된 박인혁씨의 생애사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이주 이전의 ‘케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 발견되어, 이주 이후의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과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① ‘케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 삶 속 발견

이진한씨는 1947년에 한 농촌 마을의 적지 않은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된 생애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권투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D학과를 전공한 것과는 무관하게 권투를 계속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으로써, 이러한 청년기 권투생활이 자신의 생애사에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사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생애사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느 날 밤 큰 부상을 입는 데리를 당하였고,

11) 이는 쪽과 줄을 표기한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21쪽 32줄부터 41줄까지의 인터뷰텍스트 내용임을 의미한다.

이에 용의자를 찾아낸 끝에 “반병신”이 되도록 폭행한 것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해병대 자원입대라는 구술로써 전개된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생애사는 3년 만에 제대한 후 복학을 포기한 채 1년 정도를 쉬다가, 우연히 파독광부 모집 광고를 보고 독일에 오게 되었다는 구술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진한씨의 이야기된 생애사는 독일에 이주한 배경이 ‘체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써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인혁씨는 1945년에 한 농촌 마을의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된 생애사도 위의 이진한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 배경과 동기에 집중된 내용으로써 시작되고, 이에 대한 구술도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박인혁씨의 이야기된 생애사는 1967년에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4개월이 연장된 40개월을 복무한 끝에 1970년 4월에 제대하였고, 파독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한 친척의 권유로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을 하였는데,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진 덕분에 동년 5월 말에 독일에 오게 되었다는 이주 배경과 동기에 집중된 매우 제한적인 구술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3년 전인 2009년, 그의 아내와 실시했던 인터뷰에 동석했던 그가 자신의 이주 배경과 관련하여 구술했던 내용을 교차시켜 분석하면, 해군생활 중 3년을 권투선수로서 활동했으며, 그 친척이 자신에게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해보도록 권유한 것도 “하도 사고치고 다녔던” 자신을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독일에 이주하게 된 배경이 이진한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써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남성들의 이야기된 생애사를 각자의 생애사적 데이터와 교차시켜 분석한 체험된 생애사에 의하면, 전자의 이진한씨가 19세이던 1966년부터 22세이던 1969년까지 군생활을 하다가 28세이던 1975년 12월에 독일에 왔다는 것 이외에, 제대 후인 22세부터 독일에 온 28세까지 6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구술을 하지 않았고, 후자의 박인혁씨도 22세이던 1967년부터 25세이던 1970년까지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 후 바로 독일에 왔다고 한 것 이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대가 이루어진 22세 때까지 3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전혀 구술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남성들의 이러한 특정 기간에 대한 무언급도 이 기간의 행적 역시 ‘체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설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이러한 무언급은 공식적으로 호명할만한 직업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거나, 혹은 직업생활 자체가 부재한 실업생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직업생활과 관련된 구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체도를 이탈한 운동선수로서의 남성’¹²⁾ 삶만이 잠재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들의 이주 이전의 생애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직업생활을

12) 이러한 가설은 이진한씨의 경우, 결혼한 후 광산노동자 생활을 5년 동안이나 지속했던 이유를 구술한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명백히 증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 그때는 내가 뭔가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주먹만 쓰고 깡패질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라고 5년 동안 내가 근무를 했어요.(3: 35-38)”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당시에 발현되어 있었는데, 생애사를 구술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단지 표출되지만 않았을 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②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한 비연속적 재생산

이 두 남성들의 생애사적 데이터들에 의하면, 이들의 결혼은 이주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광산직 이후의 직업생활은 여러 자영업을 편력하는 생활로 이루어졌으며, 첫 자녀의 양육에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진한씨는 광산노동자로 근무한지 1년이 못 된 시점에서 파독간호사와 결혼하였고, 총 5년간의 광산노동자 생활을 거쳐 철강회사로 이직하였는데, 갓 태어난 큰아들의 양육문제도 1-2개월 만에 퇴사하였고, 1년여의 양육기간을 거쳐 편의점을 3-4년 정도 운영한 이후, 당구장과 골프숍으로 업종을 바꿔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을 55세이던 2002년까지 총 15년여에 걸쳐 하였다. 그리고 박인혁씨는 독일에 온지 7개월 만에 파독간호사와 결혼하였고, 단지 몇 개월간의 광산노동자 생활을 끝으로 3년간의 E13) 재교육과정에 들어갔으며, 재교육 시설이 위치한 관사에 거주한 덕분에 어린 큰아들도 직업생활을 하는 아내와 번갈아 돌보며 재교육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즉시 E로서 취업이 되어 4-5년 정도를 근무하였고, 1977년 이후부터는 중간에 잠깐 보험회사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퍼상이나 골프숍 등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애사적 데이터를 각자의 이야기된 생애사와 교차시켜 분석한 체험된 생애사에 의하면, 이들의 결혼이 이주 후 1년 이내에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광산노동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즉시 귀국을 하기보다는, 독일에서의 이주생활을 보다 장기화할 계획을 이주생활 초기에 세웠고, 따라서 이러한 계획 실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혼을 서둘렀던 측면도 있었음을 발설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여러 자영업을 편력하는 패치워크직업사는 노동이주를 매개한 광산노동직이나 이와 유사한 블루칼라직을 이주생활 초기에 청산했음을 의미하는 한편, '사장'이라는 직업적 위계질서에 자신들을 편입시킴으로써 피고용 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전략과 함께, 남편이 아내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존의 젠더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전략도 작동시켰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애사적 전략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업사는 '사업가로서의 남성'의 위치는 유지되었으나 굴절과 단절로 점철된 불안정적인 생활로 이어졌고, 이들의 가정사는 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업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가정경제의 중심'(나혜심, 2009b)이 된 아내가 상위에 위치한, '역전된 젠더관계'를 감수해야 하는 생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직업사와 관련하여 "시원찮은 돈벌이에 그친" 삶이었다고 평가한 박인혁씨의 생애사적 성찰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첫 자녀들의 출생으로 돌봄이 매우 요구되었던 이주 초기에 각각 1년여의 자녀양육14)이나 재교육과정 시 자녀양육을 분

13) 파독광부 출신 노동이주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한 철강, 기계 등의 분야가 아닌 매우 특수한 직업을 위한 재교육과정인 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부호화한 것이다.

14) 3년 전 그의 아내와 실시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때 큰아들은 2개월 정도 집에서 돌봄을 받다, 독일인 양육모(Pflegemutter)에게 맡겨졌다고 하였다. 즉, 반달은 양육모의 집에서, 반달은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큰아들 양육에의 참여는 양육을

담하는 등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이 이루어졌던 그 이후에도 이러한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¹⁵⁾, 그럼에도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혹은 가사를 분담하는 등의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와 관련한 구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안정한 패치워크직업사에도 불구하고 주로 직업사가 구술이 되는 반면,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와 관련한 가정사는 거의 구술이 되지 않은 이러한 서사구조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패치워크직업사와 더불어 사회활동사가 구술의 양 축이 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사구조는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도 재생산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점점 약화되는 위기에 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위기에의 대응은 한인회 임원활동 등과 같은 동족 커뮤니티 내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도 단절과 굴절이 동반된 양상이기는 하나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로부터 이직한 1977년 이후의 자영업자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불명확한 채 머물러 있는 박인혁씨의 패치워크직업사에서는 이러한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이 이진한씨의 경우에서보다 장기화되었고, 이러한 삶 속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한 대응 노력도 이진한씨가 한인회 회장직을 2회 연임한 것과는 달리 4회 연임한 것에서 보듯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 그때는 교민 사회도 어수선했고 별로 기반이 잡혀진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한인회장을 하면서 첫 선거도 했고, 상대후보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이겨가지고 했는데, 임원직도 처음으로... 그 앞에는 한인회가 유명무실하게 한 사람이 회장이고 임원 조직도 없었고 개판이었는데, 처음으로 해가지고 광복절 행사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린아이, 한인 학교 2개 있는 것 같은 개로 합치면서 보람을 느껴보았고.(이진한, 19: 35-40)”

“참: 그제 인자 교민들 기쁘게 해주는 거죠, 체육대회 열고, 야유회도 하고, 망년회도 하고 그런 거 하죠, 교민들도 억울한 일 있으면 대사관 가서 좀 싸움도 하고.(박인혁, 13: 30-31)”

이처럼 과거에는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초래된 정체성 위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으로써 대응했다고 한다면, 생애사를 구술하는 현 시점에서는 성공적인 자녀교육사 및 자녀직업사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자식농사에 성공한 아버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전

목적으로 퇴사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자의 위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15) 이진한씨의 경우, 그의 아내의 인터뷰에 의하면 일찍부터 가사 분담에 참여하는 생활을 부분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남성 정체성이 분화가 아닌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가사 분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그 정도보다는 자신의 생애사를 바라보는 틀, 즉 생애사적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른 것으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생애사적 관점은 형성되어 있으나,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에 대한 생애사적 관점은 거의 부재한 때문이다.

략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큰아들이) 의사, 박사하고 내일 모레 또 영국을 가는데, 영국 F 무슨 대학교인데, 졸업식을 내일 모레 하게 돼요.

실: 그래요?

참: 거기도 의대라. 근데 저희들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또 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경험 없으니까 애가 졸업식을 고등학교, Gymnasium(인문계 고등학교) 때 양 쪽 학교를 합쳐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애가 수석을 한 거라. 시장이 참석해가지고 이놈 이름을 부르는데, 애가 17살이잖아요. 부모가 뭐하는지도, 부모도 없고, 시장, 전체 학교에, 제가 신문을 보고 (나중에) 알았어요, 말이 없으니까. 에이, 이번에는 졸업식을 하면은 한번 가족이 같이 전부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자.(이진한, 4: 21-29)”

“참: 이번에 E의원이 (독일에) 와가지고, (변호사인) 우리 애를 보더니,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G(행사) 갔다 집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 토요일 라인강가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인사를 했는데, 친아들 맞습니까? 사실은 미국 가서 2세대를 만났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본대요. 근데 잘해요, 내용이 중요해요.(박인혁, 25: 36-39)”

따라서 이주 이후의 ‘역전된 젠더관계 속 사업가로서의 남성’ 삶 및 이로 인해 초래된 정체성 위기에의 대응이 직업적 위계질서와 유사한 한인 커뮤니티 내 리더의 지위에 위치한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이루어졌던 삶,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적인 교육사 및 직업사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자식농사에 성공한 아버지’ 정체성이 표출되고 있는 현재의 노년기 삶 속에서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 위주의 패치워크직업사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사가 구술의 양 축이 되는 반면,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와 관련한 구술이 거의 부재한 서사구조도, 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게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주 이후의 생애사에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분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분화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이전에 직업과 결혼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생애사에서 발견되는데, 이주 이후의 직업사가 굴절이나 단절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1)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지체적 분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지체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이전에 이미 직업과 결혼의 경험이 있으나 실패한 상태에서 독일로 이주한 이후 현재의 아내와 재혼한 경우로, 광산직으로부터 이직한 첫 직장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한

백영희씨의 생애사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이주 이전의 ‘중도에 꺾인 명에 있는 공직자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 발견되어 견고화되지만, 이주 이후의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지체적으로 분화되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① ‘중도에 꺾인 명에 있는 공직자로서의 남성’ 삶 속 발현 및 견고화

백영희씨는 1946년에 한 농촌 마을의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주 이전의 이야기된 생애사에 의하면, 호롱불을 켜 마을에서 멀리 불빛으로 깜박거리는 읍내 도시를 동경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도청소재지인 H시로 나온 것이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경험한 도시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B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한 계획이 실패하자 “탈출구”로 삼은 것이 해병대 자원입대였고, 제대 후 잠시 부모를 도와 농사를 거둔 것이 고향에서 보낸 마지막 생활이었다. 이후 B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하였는데, 부정에 연루되어 5년여 만에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되었다. 실상가상, 아들이 태어나 겨우 1세를 넘긴 때였는데 이혼까지 하게 되어, 막다른 상황에서 독일에 “탈출”해 왔다.

그런데 유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이주 이전까지 구술된 인터뷰 초두의 이야기된 생애사를, 이러한 유년 시절에 대해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 생애사를 성찰한 내용과 교차시켜 분석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고향으로부터 탈출해오는 과정으로서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H시로 나온 것이 1차 탈출이었고, 대입시에 실패하여 해병대로 자원입대한 것이 2차 탈출이었으며, 제대 후 잠시 고향에 머문 것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위해 다시 B시로 나온 것이 3차 탈출이었고, 광산노동자가 되어 독일로 이주해온 것이 4차 탈출이었던 것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4차에 걸쳐 이루어진 탈출에 대한 성찰은, 과거 당시에 탈출을 감행했던 것은 대도시를 동경한 때문이었는데, 현재에는 이러한 탈출들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고향이 늘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이고 대도시는 늘 동경의 대상이 된 곳이었던 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탈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삶을 되돌아보는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고향에 불박이로 남아 “고향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를 통해 뭔가 이루어 놓은 삶 속에서 “완성감”도 느꼈을 것 같다는 “후회”가 된다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 G시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또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고향을 지켰으면은, 고향에서 내가 고향사람들과 일을 하고 봉사했으면 인생을 보람된 안, 살았겠는가 하는 가정을 해요.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떠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내가 지금 고향에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람된 일을 하면서 안, 살았겠는가. 그리고 뭔가 이루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것 느낍니다.

질: 가정이지만, 뭔가 이루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참: 내가 사회적으로, 결과, 내 인생을 흘러와서 보니까 그런 가정 하에서 하는 거지만. 내가 고향에 살았으면, 고향을 위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내 역량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겠는가.(2: 15-23)”

그런데 이러한 생애사적 성찰 속에는, 자신의 삶이 한국,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닌 고향, 그리고 그 고향에서의 삶의 방식도 고향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이주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대안적인 삶으로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인 삶이 설정된 데에는 위의 인터뷰텍스트에 이어 구술된 이야기된 생애사에 의하면, 자신이 고향에서 도시로, 도시로 탈출해나가는 동안, 한결같이 고향에 붙박이로 남아 고향사람들과 더불어 지냈거나, 자신처럼 고향을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 지인들 중에는 도의원이나 도지사 등 공직에 오른 경우도 있는 바, 이들이 롤모델이 된 것에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공무원 생활'로 특징지어진 이주 이전의 직업사에 대해 이주 이후 전 과정에 걸쳐 자책하며 만회하고자 한 삶¹⁶⁾을 살았던 것과 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이전의 삶은 도시에서 보낸 '명예 있는 공직자로서의 남성' 삶이 중도에 꺾인 삶이었고, 이러한 '중도에 꺾인 명예 있는 공직자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는 '직업을 중시한 남성' 정체성이 이미 발현되어 견고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삶 속 지체적 분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기반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 막다른 상황에서 1977년 독일에 이주해왔지만, 생애사적 데이터와 이야기된 생애사에 의하면, 근무 외 시간까지 억척스럽게 광산노동자 생활을 이어 나간 "축"에는 끼지 못했고, 퇴근 후에는 커피나 맥주도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광산노동자들처럼 자신도 한국에 송금하는 생활도 했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폐결핵이 발병하여 3개월간의 요양생활에 들어갔다. 그리고 요양 이후 1년여의 남은 기간은 지하 막장이 아닌 지상에서 편하게 근무하였는데, 파독광부 선발 시 받은 재검 건강검진 결과에 근거해볼 때, 폐결핵의 전조는 이미 출국 전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독간호사로서 먼저 독일에 와 직업생활을 하고 있던 현재의 아내와 재혼하였는데, 일부의 사람들처럼 체류연장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결혼은 아니었다.¹⁷⁾ 이로써 계약기간만 채우면 당연히 귀국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기이주가 딸을 낳고 한국에 두고 온 이들과도 독일로 데려와 한 가정을 일구어 정착하게 된 영구이주가 되었다. 그리고 네 가족의 생계는 광산직을 떠나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한 첫 직장에서 20여년을 근무하는 생활로써, 평생 간호사로서 직업생활을 한 아내와 더불어 꾸려나갔다.

16) 그는 이주 이후에 한국인 공관뿐 아니라 공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한인회 활동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이주 이전의 삶에 대해 자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관이나 한인회 활동을 멀리한 것과는 달리 종교단체에서의 회장직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했다고 한 것은 자책하는 삶만이 아니라 만회하는 삶도 살았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 파독광부의 경우 독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로테이션 원칙에 따라 '손님노동자'로서의 최초 3년 기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1979년 11월 파독광부들의 서명운동으로 이들의 비인간적인 작업환경과 근무환경 등이 사회적으로 환기된 것에 힘입어, 또한 1980년 김대중 사형선고 등의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여 이들에 대한 독일의 무기한체류허가가 허용되었다(Nestler-Tremel and Tremel, 1985: 127-137). 따라서 1977년 파독된 그의 결혼과 관련한 위의 언급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먼저 파독된 다른 사례들과는 차이가 나는 체류 조건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애사적 데이터 및 이야기된 생애사와 관련한 평가를 살펴보면, 광산노동자 이후 20여 년의 기계설비 회사생활이 직장노조의 발달로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편, “명예 있는 남자”나 “경제력 있는 남자” 혹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남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 “남자의 삶”으로서는 “완성감이 떨어진 삶”이었던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나아가 이러한 “완성감”이 떨어진 남성으로서의 삶은 단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광산노동자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이러한 “완성감”이 떨어진 남성으로서의 삶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파독광부로서 이주한 재독한인 이주남성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이러한 “완성감”이 떨어진 집합적인 삶 속에서는 정치적, 직업적, 경제적 권력을 지향하는 남성 정체성이 아비투스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우리가 독일 여기 와서 돈도 못 모아. 인생에 완성감 이런 게 없어요, 적어도 나는.

실: 돈을,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집.

참: Ja(네). 경제적인 성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해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독일에서 열성을 다 쏟아보지도, 이뤄보지도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2: 38-3: 2)”

“참: 인생의 우리가 후반인데, 독일생활에 청춘을 여기에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완성, 성공이나 실패냐. 근데 여기서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돈 벌 기회도 없었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우리 1세대는 많이 없었고.(12: 14-16)”

한편, 그의 생애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처럼 한 개인인 남성으로서 보낸 직업사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과는 달리, 한 남편인 남성으로서 보낸 가정사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으로써 그의 전체적인 생애사가 평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구조는 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에 한 남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이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 우위적 위치가 붕괴된 한 개인인 남성의 직업사적 현실이 아내에 기여하는 한 남편인 남성의 가사 분담에 노력하는 생활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가사 분담이 직업생활을 하던 퇴직 이전에는 미흡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졌지만, 퇴직에 들어간 현재에는 상당히 진척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구술되고 있는 서사구조는, 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에 한 남편으로서의 남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사적 관점이 결합된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¹⁸⁾

18) 이러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 중 ‘생계 분담에 노력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생계부양자로서 아비투스화된 기존의 정형화된 남편의 역할을, 직업생활을 하는 아내와 함께 나누는 생계분담자의 역할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된 남성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사 및 이러한 직업사에 대한 성찰적 ‘평가(Evaluation)’와 ‘논의(Argumentation)’가 한 축을 이루고, 가사 분담에 초점을 맞춘 가정사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백영희씨의 생애사에서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이주 이전의 ‘중도에 꺾인 명예 있는 공직자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 발견되고 견고화되었지만, 이주 이후의 ‘생계와 가사 분담에 노력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지체적으로 분화되었고, 이러한 지체적 분화가 노년에 이른 현 시점에 서는 점차 속도를 내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압축적 분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압축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유형은 이주 이전에 이미 직업과 결혼의 경험이 있으나 실패한 상태에서 독일로 이주한 이후 현재의 아내와 재혼한 경우로, 평산직으로부터 이직한 이후의 직업사가 빈번한 굴절과 장기적인 단절에 노출된 최장훈씨의 생애사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이주 이전의 ‘실패로 끝난 정치적, 경제적 파워맨으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 발견되어 견고화되지만, 이주 이후의 ‘생계와 가사 분·담에 능숙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삶을 통해 압축적으로 분화되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① ‘실패로 끝난 정치적, 경제적 파워맨으로서의 남성’ 삶 속 발전 및 견고화

최장훈씨는 1942년에 한 농촌 마을 부농의 부모 밑에서 3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는데, 8세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리고 생애사적 데이터와 이야기된 생애사를 교차시킨 체험된 생애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수업료를 들고 B시로 가출한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출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였고, 가출 시에는 정치조직 집단의 “형님들”이나 “선배님들”과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로 말미암아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새롭게 정비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즉각적인 입대가 가능한 해병대를 “도피처” 삼아 자원입대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제대 이후에는 119)였던 큰형이 마련해준 대로 시골의 국민학교에서 임시직 교사생활을 하였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반 만에 그만 두고, 다시 B시에 올라가 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큰형의 도움과 한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 J공사에 취업하였는데, J공사에서의 직업생활도 “좋지 않은” 일 때문에 3년 반 만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화장품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7년 반 만에 결국 재산만 탕진한 채 접어야 했다. 한편, 자녀들을 셋이나 둔 가정생활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가 도맡아 돌보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씻기고 밥을 챙겨 먹이는 일 정도는 자신에게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를 둘러싼 주요 가족구성원들과 그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출생 서열 1순위인 장남은 아버지의 부재 시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19) 교육 분야 공무원이었으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부호화한 것이다.

것으로, 아내와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들은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로써 재현되는 자신은 정치적 파워든 경제적 파워든 둘 중의 하나는 갖춰야 하는 ‘파워맨’으로, 이분법적인 성역할에 따른 정형화된 젠더 정체성이 아비투스화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한편, 동시에 이러한 정형화된 젠더 정체성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적 상황에 직면한 때에는, 이러한 이분법을 해체한 젠더역할도 간헐적으로는 수행된 삶도 이루어졌음을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이전의 삶은 정치적 파워든 경제적 파워든 둘 중의 하나는 갖추고자 한 노력이 실패로 끝난 삶이었고, 이러한 ‘실패로 끝난 정치적, 경제적 파워맨으로서의 남성’ 삶 속에서는 ‘직업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이미 발현되어 견고화되어 있었는데,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도 간헐적으로는 이루어져 분화의 가능성도 예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생계와 가사 분·전담에 능숙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삶 속 압축적 분화

생애사적 데이터와 이야기된 생애사를 교차시켜 분석한 체험된 생애사에 의하면, 최장훈씨의 1974년 독일이주는 ‘정치적 파워맨’도, ‘경제적 파워맨’도 되지 못한 데다, 가정까지 파탄 난 막다른 상황에서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계약기간 3년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여 귀국한 것이 아니라, 앞서의 모든 남성들의 경우에서처럼 자신보다 먼저 독일생활을 시작한 파독간호사와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혼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독일에 거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류연장이나 이직의 문제도 아내가 근무하는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으로써 해결하였는데, 이직과 관련한 구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남성들이 이직을 위한 아내의 지원에 대해 암시하는 수준으로만 구술한 것과는 달리, 철강회사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세 곳에서의 공식적인 직업생활 모두가 아내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내의 직업적 능력과 인적 자원 가동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구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그리고 거기가 Bandarbeit(컨베이어 벨트 작업) 힘들어서 다시 I(철강회사)로 옮겼죠. 그것도 집사람이 아마 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를 통해서, 집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환자가 전부, (회사의) 책임자였어요. 그 분으로 인해서, 가지고 H에 들어갔어요.(11: 27-29)”

“참: 4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I가 J시로 옮기게 되어서, 그만두기 이전에 병원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실: I에서 옮겨가게 되니깐, 전직을 해야 돼서 병원 일을 시작했습니까?

참: 그렇죠! 그래서 병원 일을 시작했어요. 그 병원 일을 시작한 것도 저 사람이 주선을 했죠.(22: 31-35)”

그러나 광산직 이후 이직한 두 철강회사와 한 병원에서의 공식적인 직업생활은 체험된 생애사에 의하면, 45세에 진단받은 K병으로 인해 10여년 만에 끝이 났다.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할지라도 생업에 종사할 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가 재발할 경우엔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업생활의 재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간 재가복지센터의 노인수발사로서 납세가 요구되지 않은 수입 정도를 얻는 경제활동을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러한 직업사적 변화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분담했던 생계를 아내를 보조하는 수준만 감당할 수 있는 생활

로 전환시켰고, 아내와 함께 분담했던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생활로 전환시켰다. 처음에는 실업자나 가사라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무언의 압력이 아내에게서 느껴지기도 하였고, 스스로도 “남자로서의 체면”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여 힘들었지만, 이내 아내를 자동차로 출퇴근시키고 가사를 꾸려나가는 데에도 재미까지 붙일 만큼 유능한 ‘전업주부(Hausmann)’가 되었다. 따라서 아내가 퇴직한 2008년 이후에도 가사는 여전히 거의 도맡아 하였는데, 지금은 하루 한 끼 먹는 한식은 아내가 직접 조리하고, 대청소 이외의 간이 청소나 화초 가꾸는 것도 아내가 맡아 하고 싶어 해 대폭 줄었다.

참: 니가 집에서 노니까 너는 해도 된다, 마누라가 요런,

실: 아, 처음에.

참: 이런 선입견도 좀 들고

실: 아.

참: 처음에는 좀 저거 했어요.(3: 28-35)²⁰⁾

“참: 이제 습관적으로 됐고, 뭐 남, 뭐(체면) 볼 것 없이.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걸 해주는 걸 남이 볼 때 다 좋아 하잖아요.

실: 그러니까요.

참: 아, 저 사람이 남잔데 저런 걸 하나.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3: 9-20)”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적극적인 가사활동이 자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한 파독간호사와 결혼한 다른 한인남성들 대부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구술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 양 쪽의 직업생활이 일반화되었던 재독한인 부부들의 경우, 생계와 가사의 부부간 분담도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 남편들의 가사 분담에의 참여는 최장훈씨의 경우처럼 전담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적극적인 가사활동은 가사를 분담하거나 전담하는 남성들을 관용하는 혹은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일사회의 문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남성 정체성의 분화에는 최장훈씨의 독특한 가족사와 자신의 굴절되고 단절된 패치 워크직업사 및 이와 맞물려 경험한 독일의 복지시스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인터뷰가 마무리되는 후반부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아내에 빚진 삶이자 독일에 빚진 삶’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아내에 빚진 삶’이란 아내가 세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인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드렸다는 점, 아들을 임신하여 힘들게 직업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한국에 두고 온 큰딸이 L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받아 자신보다 먼저 나서서 독일로 데려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는 점, 그럼에도 1년 2개월의 치료 과정에서 큰딸이 사망하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과는 달리, 또 다시 아내가 먼저 한국에 남겨둔 두 자녀들마저 독일에 데려와 키우자며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것은 물론, 초

20) 위의 인터뷰는 2009년 파독간호사와 인터뷰를 실시했을 당시, 최장훈씨 아내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그와 함께 이동하던 자동차 안에서 나는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다.

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독일에 온 자녀들도 아내가 직접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 돌보았다는 점 등에서, 자신의 삶은 가정과 직장에 헌신적인 아내에 대해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내에 큰 빛을 진 삶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 빛진 삶'이란 아버지이자 남편인 자신이 40대 중반부터 이미 질병으로 직업생활이 단절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식들 교육에 어려움을 갖기는커녕, 한국에서 병든 몸으로 데려온 큰딸마저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고, 자신도 10년 간격으로 2차례나 K수술을 받았으나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세 자녀들 모두가 능력껏 직장을 잡아 독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의 의료복지와 교육복지가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된 때문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삶은 독일의 복지시스템에 빛진 삶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주 이후의 삶에서는 이주 이전에 보였던 정형화된 젠더 정체성의 분화 가능성, 즉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의 분화 가능성이 '생계와 가사 분·전담에 능숙한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정체성의 분화는 빈번한 굴절과 장기적인 단절에 노출된 패치워크직업사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킨 헌신적이고 유능한 아내 및 이러한 이주국에서의 삶 전체를 동반한 복지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계와 가사를 분·전담한 생활이 일상화되는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노년에 이른 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이로써,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었는데, 직업사적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였고,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기도 하였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먼저, 이러한 남성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이론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재생산되고 있거나 분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남성의 정체성이 여전히 흐릿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는 현 남성연구의 논의 지점에서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사례를 통해 그 윤곽을 보다 구체화시켰음을 의미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남성 현상에 대한 젠더 관점의 논의가 타 남성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신남성 현상을 이해한 젠더 교육과 상담이 본 노동이주남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남성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도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중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분화된 데에는 패치워크직업사와 재혼이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로 인해 형성된 가정 영역 내 남성

열세적 젠더관계가 기존의 남성 우위적 젠더 정체성을 분화시키고, 이를 통해 젠더관계도 평등화되는 데에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굴절과 단절로 점철된 불안정적인 패치워크직업사는 이들 아내들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호직에 종사한 안정적인 '정상직업사(Normalberufsbiographie)'와는 차이를 보였고, 이들의 재혼이 아내들의 초혼과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패치워크직업사와 재혼사 속에서 형성된 남성 열세적 젠더관계는 기존의 남성 우위적 젠더 정체성을 분화시키고 재생산 영역에의 참여도 촉진시킴으로써, 젠더관계가 평등화되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치워크직업사나 재혼 현상이 노동이주남성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일반남성들에게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위와 갈등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논의가 재고되어야 하고, 위기와 갈등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생애사적 능력에 주목한 강점 관점의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이 노동이주남성들에게는 물론 그들의 아내들, 나아가 일반남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요구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열세적 젠더관계에 처한 남성들 중에는, 남성 정체성이 젠더관계가 평등화되는 방향으로 분화되기는커녕, 기존의 남성 헤게모니적 젠더 정체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젠더관계 또한 폭력까지 동반되는 양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남성들을 위한 강점 관점의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은 더욱 시급함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또한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가정 영역 내 젠더관계가 평등화되는 방향으로 분화된 데에는, 재생산 영역의 자원으로 활용될 가족관계망이 부재한 이주현실 속에서도, 탈경계화된 젠더역할이 관용되는 혹은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사회의 문화 및 기본적인 생존권과 교육권, 의료권 등이 보장되는 독일의 복지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남성 정체성의 발전적인 분화 및 가정 영역 내 젠더관계의 평등화가 이들 남성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보다,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복지시스템에 의해 더 추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경계화된 젠더역할을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복지시스템이 구축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젠더 인지적(gender sensitive)'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도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분화되는 유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도 도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이, 가사 분담에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자식농사에 성공한 아버지'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을 통해 변형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유형으로, 가사 분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남성 정체성이 여전히 성분에 기초한 이분법적인 젠더역할에 고정된 방식으로 재생산되었고, 이러한 재생산된 남성 정체성은 헤게모니적 남성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젠더관계가 평등화되는 데에도 역기능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가사 분담에의 실제적 참여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 참여에 상응하는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될 때에 젠더관계의 평등화도 이루

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으로서, '가사 분담에 참여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에 상응한 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도록 탈정제화된 젠더역할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이들에게 매우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적극적인 사회활동가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개인으로서의 남성 자신의 자아성취 및 동족 커뮤니티의 발전에는 생산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던 바, 남녀를 떠난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촉진시키는 개별사회복지실천 및 이주사회 내 동족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식농사에 성공한 아버지' 정체성은 노년기에 처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으나, 자신들의 불안정적인 패치워크직업사를 자녀들의 성공적인 교육사 및 직업사와 결합시키는 전략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나'보다는 '생득적으로 주어진 아버지'가 강조된, 주체성이 결여된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도록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던 바, 노년기 자아통합 노력이 각 개인들이 행위주체가 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나'를 중심으로 수많은 '관계성 속에 위치한 나'까지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대상 자아통합 교육이나 상담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본 노동이주남성들의 생애사를 특징짓는 불안정적인 패치워크직업사는 개인들이 극복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광산노동직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된 학력을 크게 상회하는 고학력자들을 상당수 파독시킨²¹⁾ 한국의 송출정책 및 송출기관²²⁾의 행정적 문제와 더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송출국과 수용국간의 공식적인 계약에 따른 노동이주가 해당 이주자의 교육수준에 적합지 않은 직종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노동이주자들의 직업적 위치가 이주 이전에 비해 하락된 위치로 편입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환기시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공식적인 계약에 따른 노동이주가 해당 노동이주자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직종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송출기관의 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 또한 요구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이들의 불안정적인 패치워크직업사는 독일의 로테이션 원칙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으로 인한 '손님노동자' 신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던 바, 국가 간 구조적 불평등 계약이 개선되어야 함을 환기시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1세계와 3세계 간 불평등한 고용구조가 재독한인 노동이주자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인노동이주자들, 나아가 한국 거주 제3세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과 그 외 여러 1세계 국가들에 거주하는 제3세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노력은 매우 요구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남성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생애사 연구에 시사하는 함의다. 본 연구결과

21) 한 일레로 매일경제 신문은 1968년 7월 10일자 기사에서, 당시에 파독된 광부들 중 실제로 탄광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광부 출신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대학졸업자도 20%나 달했다고 보도했다.

22) 파독간호사의 송출이 1959년 종교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1965년 11월 이후부터는 파독간호사를 비롯한 파독광부의 송출과 모집 업무가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나혜심, 2009c).

는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을 통해 개별 사례들의 고유성과 특수성은 물론, 여러 사례들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특성 또한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별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들이 주로 제시되는 현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 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는 사례재구성 방법에 의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남성 정체성의 분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이들을 권위적인 가부장으로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수자, 2004; 나혜심, 2009b)과는 다소 차이가 났는데, 이는 본 연구가 당사자들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논의로써 기존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의 논의 지평을 확장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후속 연구로써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주와 젠더의 연관을 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제한점을 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이주와 젠더의 연관을 논의하는 후속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용찬, 2007, “여성노동자 국제 이주와 이주 수용국가에서의 조직화의 관계 연구: 한인 여성노동자의 독일이주와 조직화 사례 분석”, 『社會科學研究』, 15(3): 182-216.
- 김용출, 2006, 『독일이리랑』, 서울: 에세이.
- 김학선·홍선우·최경숙, 2009,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산업간호학회지』, 18(2): 174-184.
- 나혜심, 2009a, “독일 한인간호여성의 노동의 성격”, 『독일연구』, 17: 111-140.
- _____, 2009b, “한인여성간호노동자의 독일이주와 한인가족 내 여성의 역할”, 『여성과 역사』, 11: 43-74.
- _____, 2009c,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1960-1970년대 한인간호인력 독일행의 원인”, 『서양사론』, 100: 255-285.
- 남재량·이창용, 1998, “韓國의 失業率 趨勢變化에 關한 研究”, 『經濟學研究』, 46(2): 31-61.
- 매일경제, 1968, “서독광부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나?”, 1968년 7월 10일.
- 박영균, 2010,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시대와 철학』, 21(3): 369-411.
- 양영자, 2010,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323-351.
- _____, 2012,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2): 325-354.
- _____, 2013,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271-298.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_____, 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화혼성성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영석·박재홍, 2006, “재독일 교민의 역이주와 귀향 의식에 대한 연구 -남해군 ‘독일마을’ 입주 교민들의 경우”, 『독어교육』, 36: 443-480.
- 이영석, 2008,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 『독일어문학』, 40: 327-348.
- 이희영, 2005, “이주 노동자의 생애 체험과 사회 운동 -독일로 간 한국인 1세대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8: 281-316.
- 최재현, 1985,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서독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 연구의 예-”, 『韓國社會學』, 19: 111-127.
- Alheit, P., 1995, “Biographizität als Lernpotenzial. Konzeptionelle Überlegungen zum biographischen Ansatz in der Erwachsenenbildung”, 276-30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Krüger, H.-H., and Marotzki, W., Opladen: Leske and Budrich.
- Beck, U., and Beck-Gernsheim, E., 1993, “Nicht Autonomie, sondern Bastelbiographie. Anmerkungen zur Individualisierungsdiskussion am Beispiel des Aufsatzes von Günther Burkart”,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2(3): 283-293.
- Böhnisch, L., 2006, “Zum Wandel von Männlichkeit und männlicher Sozialisation im ‘digitalen Kapitalismus’”, 275-288, in *Sozialisation und Geschlecht. Theoretische und methodologische Aspekte*, edited by Bilden, H., and Dausien, B., Opladen: Farmington Hills: Verlag Barbara Budrich.
- Butler, J., 2004,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 Connell, R., 1987,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Cambridge: Ox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Der gemachte Mann. Konstruktion und Krise von Männlichkeit*, Opladen: Leske and Budrich.
- Faludi, S., 2001, *Männer. Das betrogene Geschlecht*, Reinbek: Rowohlt.
- Fischer-Rosenthal, W., 1991, “Biographische Methoden in der Soziologie”, 78-89, in *Handbuch Qualitative Sozialforschung. Grundlagen, Konzepte, Methoden und Anwendungen*, edited by Flick, U., von Kardorff, E., Keupp, H., von Rosenstiel, L., and Wolff, St., Opladen: Farmington Hills: Verlag Barbara Budrich.
- _____, 1999, “Biographie und Leiblichkeit. Zur biographischen Arbeit und Artikulation des Körpers”, 15-43, in *Biographie und Leib*, edited by Alheit, P., Dausien, B., Fischer-Rosenthal, W., Hanses, A. and Keil, A., Gießen: Psychosozial-Verlag.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 Hitzler, R., 1988, *Sinnwelten. Ein Beitrag zum Verstehen von Kultu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Kohli, M., 1985, “Die Institutionalisierung des Lebenslaufs: Historische Befunde und Theoretische Befund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37(1): 1-29.
- Ley, K., 1984, “Von der Normal- zur Wahlbiographie?”, 239-260, in: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edited by Kohli, M., and Robert,

- G., Stuttgart: Metzler.
- Levy, R., 1977. *Der Lebenslauf als Statusbiographie. Die weibliche Normalbiographie in makrosoziologischer Perspektive*, Stuttgart: Enke.
- Märker, U., 2010, "Der Bergmann", <http://www.rolandgen.de/documents/bergarbeiter.pdf>
- Nestler-Tremel, C., and Tremel, U., 1985. *Im Schatten des Lebens. Südkoreaner im Steinkohlebergbau von Nordrhein-Westfalen -eine Untersuchung zur Rotationspolitik mit ausländischen Arbeitnehmern*, Heidelberg: 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 Rosenthal, G.,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New York: Campus Verlag.
- _____, 2011,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Verlag.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3): 283-293.
- Stolle, Ch., 1990, *Hier ist ewig Ausland. Lebensbedingungen und Perspektiven koreanischer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Verlag für und Wissenschaft und Bildung.
- Yoo, Dojin., 1975, *Die Situation koreanischer Krankenpflege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hre sozialpädagogischen Probleme*, Kiel.

Gender Identities of the Korean male Migrant Workers in Germany

-Based on the biographical Case Reconstruction-*

Yang, Yeung Ja
(Kyungnam University)

The research intended to analyse gender identities of Korean male migrant workers in Germany through the biographical case reconstruction. Five cases were reconstruc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 'work-oriented identity of man as an individual' was formed through their biographies. An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interruptions and the discontinuities in their employment biographies, and in relation with their experiences of employment and marriage before migration, the 'work-oriented identity of man as an individual' was continuously or discontinuously reproduced in their experiences with welfare systems and social services in migration, as well as delayed or compressively differentiated in combination with a 'livelihood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sharing or sharing-exclusive identity of man as a husband' in their same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work were addressed, furthermore some implications for the biographical research.

Key words: male migrant workers, Korean in Germany, Korean miners in Germany, gender identities, case reconstruction, biographical research

[논문 접수일 : 13. 04. 30, 심사일 : 13. 06. 04, 게재 확정일 : 13. 07. 0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NRF-2012S1A5A2A01018435).

임해영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전공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관심분야는 여성복지, 질적연구, 종교사회복지임.
E-mail: hae0629@dongguk.edu

이혁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사회복지연구』, 42(1), 2011, 공저), “노인도박자들의 생애사 연구”(『한국가족복지학』, 30,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질적연구방법, 사회복지윤리와철학임.
E-mail: leehk@skku.edu

양영자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1), 2013), “생애사적 사례 재구성-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사례를 중심으로-”(『비판사회정책』, 37, 2012),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공저),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이(주)민 연구, 질적 연구임.
E-mail: alter@kyungnam.ac.kr

진혜민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청소년복지연구』, 14(2), 2012, 공저), “학교적응유연성척도의 요인구조 분석”(『학교사회복지』, 24, 2013, 공저),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청소년복지연구』, 13(2),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메타분석연구임.
E-mail: jhm0201@hanmail.net

박병선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사정 및 성과 척도개발”(『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2013, 공저),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학교사회복지』, 24,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청소년 복지, 척도의 개발과 활용임.
E-mail : bspark@uu.ac.kr

이성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 최근 주요 논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청소년복지연구』, 15(2), 2013),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사회과학연구』, 29(1), 2013), “사이버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청소년문화포럼』, 33, 2013),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연구방법론임.
E-mail: event-sd@hanmail.net

염동문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 주요 논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애와 고용』, 23(1),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21(1), 2013),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원을 통한 직무만족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재활복지』, 17(1), 2013) 등이 있음. 주요관심 분야는 장애인복지, 연구방법론임.
E-mail: ksitv@hanmail.net